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가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중로 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알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가람 선원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 한마음으로 중심 촛대를 세우고 불을 밝혀야

### 불을 밝히면 천도가 되나요?

**문** 칠석과 백중이 되면 불을 켜서 등을 밝힙니다. 그런데 왜 그렇듯 불을 밝혀야 하며, 불을 밝히면 나와 조상님이 정말 밝아져서 천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간단히 표현을 하자면, 서천궁은 바로 내 마음 깊은 속을 말합니다. 잠재의식으로 깊어 들어간 그 속을 말합니다. 즉 말하자면 불성 자리, 움죽거리지 않는 거기까지 말합니다. 그게 서천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내서 움죽거리라는 이 세상은 예를 들어서 동천의 아축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간편하게 우리가 그 뜻을 알려면, 마음 깊은 속이 서천궁이다 한다면 바로 마음을 내는 것은 우리가 불을 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불을 켜기까지 재료를 다 해서 자리가 딱 잡혀야 한생각을 내는 게 바로 불을 끄어대는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라이터가 준비가 되어 여러분이 탁! 불을 켤 수 있고 한철나에 불을 댕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대비가 되지 않는다면 한 철나에 불을 댕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이 촛대라고 본다면 바로 불을 댕기는 그 생각은, 우리가 촛대를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주인공 자체를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 불을 탁! 켤 때에 불이 화가 가서 붙는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이 칠석과 백중은 둘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백중이 서천궁이다 한다면 칠석은 동천에 불을 댕기는 즉, 해가 뜨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 인성이 태어남을 말하고 인성이 죽어감을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리를 알면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대로 우리가 여여함을 배우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천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천에 불을 켤 수가 있는, 인등을 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불을 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는 그렇게 공덕을 한마음으로 모아서 백중에 정성을 들일 수 있게끔 우리가 불을 켜고 자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칠석이 부모 조상들에게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죽은 조상의 마음이나 산 조상의 마음이나 돌이 아닙니다. 몸만 없어졌을 뿐이지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차원도 그대로죠. 산 사람들도 그 마음의 차원은 그대로요, 마음을 내기 이전도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것은 불을 켜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초를 만들어 놓고 상냥불을 그어댈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불을 댕기는 것도 한순간에 불을 댕길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칠석입니다. 그 불을 댕길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것은 지금 불을, 우리가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불을 아무 때라도 생각을 한데 합쳐서 불을, 아무 때라도 생각을 하면 그냥 불이 당겨지도록 하기 위한 공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공부를 하신다면 백중에도 조상들의 마음이나 산 사람의 마음이나 돌이 아니라서 그렇게 공 도리를 완전히 한마음으로서 이끌어 나가면서 중심을 딱 세우고 촛대를 세우고 불을 켜게끔 딱 가지고 있던 말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마음의 자가발전소에 불을 댕기는, 한생각에 그대로 불이 댕겨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칠석에는 산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댕기고, 백중에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대로 그 바탕을 세우고 중심을 세워서 주장자를 세워 놓으면, 동천에 와서 금방 불을 켤 수가 있으니까, 살아야 할 때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상을 위해서 하는 것도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하는 것도 되고 부모나 자식, 아까나 남편, 친지 형제들을 다 위해서 한마음으로서 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저 한생각에 그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오신 그 자체, 또는 가지고 돌아가고 가지고 괴로움을 받고 이러한 그 재료를 가지고 모든

에 백중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백중날 여러분이 촛불에 댕길 수 있는 불을 켜서 영가님들의 마음에까지 불이 들어올 수 있어야만 영가 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중심 촛대에 불을 켜지 못한다면 어떻게 조상님들의 촛대의 불이 켜지겠습니까? 이걸 자동적으로 이어진 연결된 줄 아닌 도리입니다. 이 도리는 칠석과 백중과 연결이 돼 있는 줄이 아닌 그런 뜻입니다. 그걸 가깝게 본다면 자기 깊숙한 마음내기 이전과 또는 깊숙한 마음속에서 촛대에 불이 댕겨지는 것과 현실의 불이 댕겨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이 되고 가설이 왜 있기 때문에 다 밝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죠. 지나가다 지나오다기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의 불을 밝혀주세요.

### 마음이 잡히지 않는데...

**문** 마음 밭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청년 법우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모르게 부모님이 다 계산해도 고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확고하게 잡히지 않고 가끔씩 불쑥불쑥 올라오는 마음의 일렁임이 있습니다. 스님, 관을 한다고 하면서도 관해지지가 않고 공부가 잡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만날 내가 산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이 세상이 모두 허튼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웃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웃은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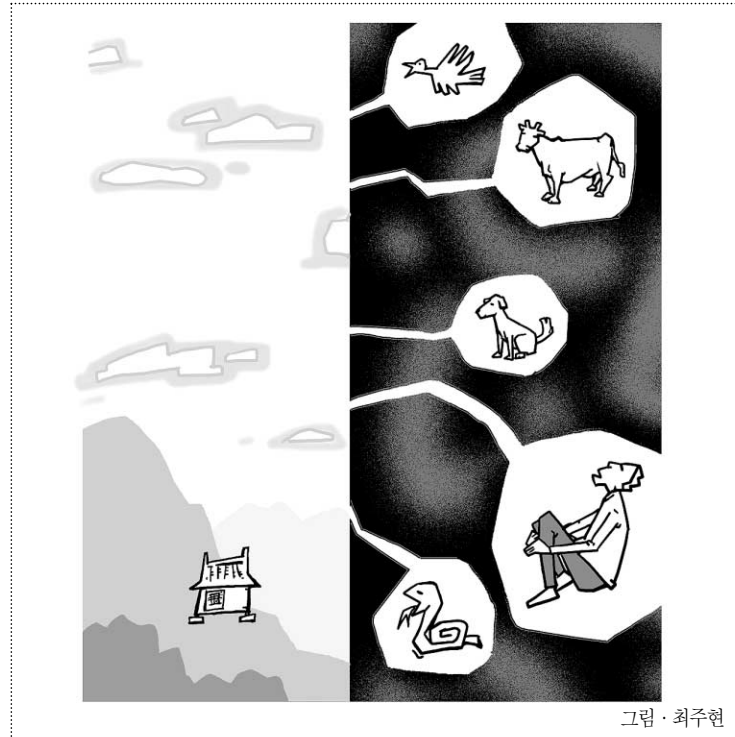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내가 있다고도 생각 말고 없다고도 생각 말고 닥치는 대로 그냥 봐 가면서 사세요!

도 없고 성년 사이도 없고 우는 사이도 없습니다. 내가 살았다고 하는 사이도 없어요. 매사 게 다 내가 살아 있으니까 모두 있다 그러지 내가 없는데 뭐가 있었어요. 있다고 그러는 걸로 인해서 오는 허탈감도 있고 매사 게 거기서 오는 거지요. 사람이 길을 걸을 때 한 발자국 떼 놓으면 안오나요? 없지요. 또 떼 놓으면 안오나요? 또 없지요. 사람 사는 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살아도 산 게 없고, 죽어도 죽는 게 없고, 길을 걸어가도 걸어가 게 없고, 악을 써도 악을 쓴 게 없어요. 그렇게 살아 보니까 없는 걸 가지고 애란지탈하고 야단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없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닥치는 대로 그냥 봐 가면서 살아요. 놔 가면서 안 살아도 보지는 것 아녜요? 한 살 먹어 두 살 먹어, 그냥 저절로 보지요. 다 늙어서 죽어도 죽는 사이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돌아다니고 살아도 돌아다니고 죽어도 그냥 다녀요. 살아도 산 게 없고 죽어도 죽는 게 없어요.

더 살아 보세요. 안 그런가. 이 세상 우주 만상이 다 죽거나 살거나 죽는 것도 없고 산 것도 없다. 그러니까 죽을 것도 없고 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었다 살았다를 다 놓아가지 놓지 않으면 어떡해요? 놓을 것도 없이 놔야지요.

전에 어떤 사람이 어머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죽겠거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다가 앉아서 울었대요.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가시고 한 번도 저는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울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앞에 나서더라요. "아니, 울긴 왜 우니? 찢찢하게 살아라. 죽어도 울지 말고 살아도 울지 마라." 그러곤 서 계시더라요. 그러니 눈 깜짝 할 새 부모가 돌아가셔서 안 보인다 하더라도 안 보인단 말 하지 마라 이겁니다. 죽었다고도 하지 말고, 정말이에요. 항상 눈에 보이질 않아도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고 고아 같다고 했는데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봐요. 인제는 고아가 아니었는지를요. 부모가 안 계셔야만 고아인가요? 이 세상 태어난 게 본래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거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누구나 불이 백중에 촛대를 해 놓은 데 가서 불이 없으면 영가님들께서 좋은 데로 천도가 되기 때문

살다 보니까 자기가 좀 컸다고 이 생각 저 생각 해 봐도 그게 이해가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 간 것도 없고 온 것도 없으니까 그냥 놔 버리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항상 힘들어요. 한 것도 없고 안 한 것도 없고 산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어요. 질런한 사람도 없고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고, 질문 받는 나도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찾을 것도 없고 애걸복걸할 것도 없어요. 하 풀하면 없어지듯이 꿈 같은 세상인니까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잘 관해진다 관해지지 않는다. 공부가 잘된다 잘 안된다 할 것도 없이 물룩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올라오는 것마다 다시 내려놓고 편하게 살아가세요.

### 도로에서 죽은 동물들에 대해서

**문** 요즘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에서 차에 깔려 죽은 개나 고양이의 모습들이 자주 눈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하는지요.

**답** 내가 살생을 꼭 해서만이 살생이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죽은 것을 봤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건져야 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벌레가 죽어 있다 하더라도 한생각에 건져야 합니다. 예누리가 없어요. 모든 마음이 한마음으로 뭉치면 부러지지 않습니다. 좋은 마음과 좋은 행동과 좋은 건져야하는 것은 세세생생에 버릴 것이 없고 아까울 것이 없고, 또 그러면서도 안 버릴 게 없듯이 전부 때에 따라서 한 철나에 도움이 오고, 근데 그 집의 젊은이들이 모르니까 그걸 그냥 버리는 겁니다. 내가 했으면 한 대로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모든 생명들의 모습들이 다르다 이러지만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착하면 서로 다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전에 길을 지나가는데, 어느 부자 대갓집에서 그 집을 고쳐려고 할어서 부수는데 그 집에서 큰 구멍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집의 젊은이들이 모르니까 그걸 그냥 토막토막 내서 저 길바닥에다 그냥 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토막토막 낸 것이 그냥 팔팔팔 뛰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지나가다가 보고 참 안됐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그 마음이 안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 통을 집어 가져온

에, 해 놓은 것 그대로 있는데 물어 놓은 구멍이 틀 한데 합치면 한 쟁통이나 되는데 그게 가뭇도 없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나는 저녁에 사람들이 다 자면 풀밭이든 어디든 내가 앉아 있고 싶은 데 그냥 앉아서 30분, 그거는 30분이다 한 시간이다 이런 게 없습니다. 내가 앉아 있고 싶으면 별을 쳐다 보고 나를 보고 이러면서 앉아 있는데, 그 재미있는 거는 말도 못해요. 정말이지 저녁이 돌아오면 그렇게 조용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별성 하나하나가 나 아님이 없고 풀포기 하나하나가 나 아님이 없으니 그 벗들하고 느느라고 아주 정신이 팔렸죠. 그랬는데 그렇게 잠시 앉아서 저녁이 돼서 별이 뜨고 그래서 좋아서 쳐다보고 그러는데, 쳐다보니까 그 구멍이 가 말입니다. 공중으로, 광목 있죠? 하얀 광목. 그것이 그냥 파르르 날더니 그걸 타고선 그냥 올라오는 겁니다. 그걸 타고, 그러더니 그것이 저 꼭대기로 올라가더니마는 딱 보이는데 부처님 상이 그냥 보이는 겁니다. 그게 화해서, 그 마음이 화하면 몸뚱이는 벗어지고 그 마음이 화하면 마음이 바로 사람도 될 수 있고 부처로서의 한마음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게 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그걸 거기다가 물어 줄 때 벌써 나로 변했고 내가 변해서 벌써 거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뱀도 연꽃을 때는 모두가 와 줍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됐든지 그 어려움의 용도에 따라서 모두 그냥 도와주는 겁니다. 그 래 시골에 다니면서 소에 치인 사람 뱀에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도 한생각 지극히 하면 그 뱀이 나 있던 말입니다. 그건 왜냐. 모두 그 용도에 따라서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궁무진한 니까. 그러니 한마음이 뭉쳐지지 않는다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우리 내면세계에, 우리 몸뚱이 속에 천 차만별로 들어 있는 그 이쁨들이 다, 의식들이 그 생명들이 다 나 아님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럼으로써 그걸 한데 합쳐서 부르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그렇게 자기 사람이 많은데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다. 우리가 살아나올 때는 바로 불을 켜주고 나를 수 있게끔 돼 있고, 또 죽어갈 때는 바로 그 초를 장만하고 마련을 하기 위해서 서천궁으로 가는 거고 또는 불을 켜기 위해서 동천으로 온다 이겁니다. 이렇다면 불을 켜기 위해서 오는 것은 칠석이고, 불을 켜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바로 서천궁, 백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 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서도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제 자리를 굳건히 다지지 못한 채 모두 돌아갔기 때문에 부처님 조상도 그렇고 여러분을 다 한마음으로 공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백중이 생긴 것이고 칠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칠석

결 여러분의 한생각에, 인등의 불에 한생각이면 모든 것이 다 태워져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실현하기 위해서도 칠석과 백중을 지내면서, 재료를 가져오신 것을 실행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상냥을 탁! 그대에서 불이 일어나서 그 모두 두를 무너뜨리고 태워 버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살아나가는 가정과 앞집이 환하게 길이 인도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칠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산 사람들의 마음의 인등을 켜는 날입니다. 우리가 백중에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 인등을 켜기 때문에, 자식들이 인등을 켜기 때문에 그 인등의 불이 백중에 촛대를 해 놓은 데 가서 불이 없으면 영가님들께서 좋은 데로 천도가 되기 때문

# 일체를 나온 자리에 다시 돌려놓고 자유롭게 살라

29면에서 계속

말입니다. 그 이들을 어떤 걸 부를 때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치에 있는 그 모습들이 나라고 하겠습니까. 또는 간장에 있는 생명들이 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생명이 그렇게 많고 내 모습이 그렇게 많고 내 마음이 그렇게 천차만별로 자주 회해서 자주 나투고 나오는데 그럴 어떻게 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끊는 것도 없고 안 끊는 것도 없으니라, 색과 공은 그냥 그대로 들어 있어서 바로 여러분이 움직여서는 대로 공해서 돌아가니가 들어 아니란 뜻이죠. 그것은 정녕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생명들을 보더라도 마음으로 합부로 무시하거나 하찮게 보지 마시고 합이 없는 무주상 보시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주세요.

## 왜 화를 내고 힘들어지나요?

**문** 본래정정심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왜 똑같은 일을 가지고 다른 도반들은 여유롭게 잘 넘어갈 수 있고 그러는데 저는 저도 모르게 화를 내며 힘들어하게 되는 것입니까. 수행의 부족으로 인해 차이로 보이는 것이지요?

**답** 마음은 제가 없어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항상 말해 왔지만 자기가 자기 몸 다루는 것도 자유롭게 생각을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실정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믿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놓으려고 말을 하면 “무엇을 어떻게 놓습니까?”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자기 주인 근본 뿌리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휘둘러져서 일어나는 마음들이 자기인 줄 알고 이리 흘러 다니고 저리 흘러 다니며 세상이나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자꾸 말리지 말고 거기에 모든 것을 놓고 부드럽게 생각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동하면서 일체를 나온 자리에 다시 돌려놓고 자유롭게 살라고 하는데도 자기가 부드럽게 생각을 못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진실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경질이 나고 부아가 치미는 그 상태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올라오는 대로 끄달려서 밖으로 내뿜는 그것이 바로 화탕지옥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딱 데서 화탕지옥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리앉히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화탕지옥이거든요. 근데 왜 내가 자꾸 거기에 끄달려서 괴롭게 사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상구보리 하화중생 해야 한다고 말을 한 원인도 거기에 있습니다.

내 지배인의 마음은, 마음내기 이전은 그대로 부처지만 이 속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마음 본별은 바로 중생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중생들의 마음이 그렇게 들끓어서 본별심이 아주 동할 때는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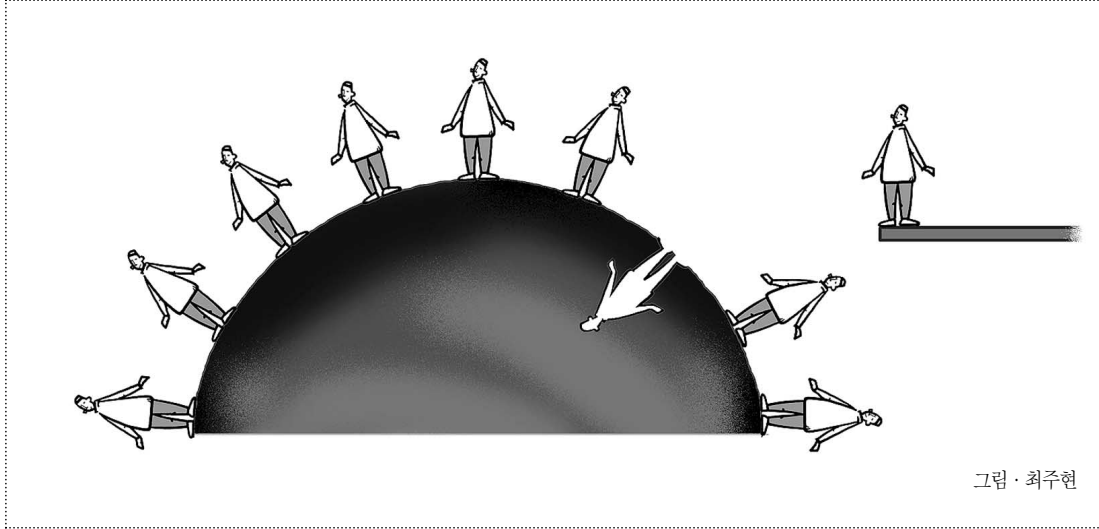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합이 없는 무주상보시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이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깐 거기서 해결해야 한다.’ 하고 믿고 그 생각들이 나온 그 자리에 다시 넘어갈 수 있고 그러는데 저는 저도 모르게 화를 내며 힘들어하게 되는 것입니까. 수행의 부족으로 인해 차이로 보이는 것이지요?

**답** 마음은 제가 없어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항상 말해 왔지만 자기가 자기 몸 다루는 것도 자유롭게 생각을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실정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믿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놓으려고 말을 하면 “무엇을 어떻게 놓습니까?”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자기 주인 근본 뿌리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휘둘러져서 일어나는 마음들이 자기인 줄 알고 이리 흘러 다니고 저리 흘러 다니며 세상이나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 지배인의 마음은, 마음내기 이전은 그대로 부처지만 이 속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마음 본별은 바로 중생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중생들의 마음이 그렇게 들끓어서 본별심이 아주 동할 때는 ‘아,

네 능력이고, 네 생이 내 생이고 내 생이 네 생이 라면 얼마나 든든하고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공심이라는 것을, 공용이라는 것을, 공생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다가오는 바깥의 일들에 그렇게 연연해하고 아파하지 않으면서 나와 남까지도 지혜롭게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을 넓혀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 왜 원하지 않은 일을 당해야 하나요?

**문** 나름대로 열심히 사느라고 살지만 생각지도 않은 데서 사고를 내고 가족들이 속을 썩이거나 하는 일을 당하면 내가 무슨 업으로 인해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살아갈 의욕을 잃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과거에 지은 업으로 인해 원하지 않은 일들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 어떤 사람이 예전에 아주 한탄을 하면서 그러더군요. 아들이 나가서 어떻게나 노름만 하고 그러는지 얼마나 속이 상하고 미운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법이는 안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으면 “이놈의 새끼, 나가서 급살이나 맞아라.” “이놈의 새끼, 영병이나 걸려서 죽어라.” 이런 욕을 해댔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욕을

지독하게 하는 분이 많이 있었죠. 그랬는데 그 아들이 정말 영병이 걸려서 죽었거든요. 아들 하나 있는 게 그렇게 병이 들어서 죽고 아들 뜻을 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짓고 나온 업보인데 자기 업보 생각을 하지 않고 아들 뜻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가슴이 미어져서 울고 있으면서 지은 인과를, 그런 것도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아주 한순간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 보세요. 그리고 이 공부 하는 데에 생활이 지장이 된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생활이 즉 공부니까 말입니다.

###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병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센터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황토는 병을 치유하는 신비가 있다는데”

**황토집 건축에서부터 황토요법 [민간요법]을 상담해 드립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천연 황토방**

## 천연황토 BIO21

- ※ 천연 황토방의 특성
  - 새집증후군의 해결은 물론 **화재**에 안전하다.
  - 인체에 해로운 **화학재료**는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 열차리를 전혀 하지 않은 100% **생황토**로 시공한다.
  - 도배를 하지 않고 흙에서 자유롭게 생활한다.
  - 집안에서 **황토집방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 ※ 기존 주택이나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

발명특허 제 0300446호

**천연황토 BIO21** TEL : 041-663-4977~8  
 H.P : 016-269-1233

**불교방송과 현대불교신문이 자재이 소개한**

## 영산범음집

안글해설판 사물장단악보

**천도재(49제)가 각종 시석에 영산범음집(靈山梵音集) 한 권이면 여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영산범음집 특징

-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도록 구성됨. 운운(云云)은 없음
- 전문(全文)에 걸쳐 한글해설을 실어 내용을 알고 집전할 수 있도록 함
- 장경연구소의 서체지원으로 고문자(古文字) 이체자(異體字) 100% 완벽조판
- 바라춤과 오잡 등, 각종 전연의 사물장단 (쇄, 태징, 북 등)악보를 실어 이해를 도움
- A4크기, 얇고도 질긴 최고급 재질, 이중배접 고서제본방식, 320쪽 (본문, 해설편, 장단편)

**정가 50,000원 (구입시 상용천도집 증정)**

영산범음집 인문본, 상용천도집 범음범패집 카세트와 비디오를 가지고 개인 소년들과 불자님들은 할인이택이 있습니다.

농 협 121047-52-069528  
 우체국 600841-02-046873 (예금주 이판암)

**(080)208-8000. 8008**  
범패연구소 <http://www.pompae.com>

소중만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정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산寺 조청**  
 드림에서 직접 만드신...

- ♣ **산寺 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 **산寺 조청**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정수 발효식품입니다.
- ♣ **산寺 조청**은 한의사 이기웅 원장과 약초연구가 김자문 거사님의 자문을 받습니다.
- ♣ **산寺 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뜻이 오르지 않는 **산寺 참꽃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산寺 청미래 조청** 1.2kg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사지관절, 중풍과 암 예방에 탁월한 기여

**산寺 기철량 조청(풍절)** 1.2kg  
 상기, 기혈조절, 손발냉증, 보혈, 혈액순환에 기여

**산寺 약도라지 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원,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산寺 조청원**

## 관상학특강반모집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4시)

▶ **지선법사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사주로 볼 수 없는 찰색!**  
**특강반에서는 기초와 이론을 속성강의**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취업보장)

“ARS 대동청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현재 미달 접수 3명만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8**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중  
**특별강의 : 사주학, 기문둔감**